

간행사

동학농민혁명은 19세기 후반 우리나라와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변화시키고 근대민족국가 수립의 단초를 제공한 민족적 대항쟁이었으며, 의병활동, 3.1운동, 4.19혁명, 광주민주화운동의 모태가 되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과 관심 부족으로 인해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들이 상당부분 유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왕의 수집 자료들 또한 모두 한문이나 일본어로 되어 있어 일반 시민들이 자료에 접근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사무국에서는 2006년부터 일반인들이 동학농민혁명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업의 일환으로 번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그 결과물로 2007년도에 정부 진압자료를 중심으로 국역한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1)』과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2)』를 간행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발간하게 된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3)』과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4)』는 주로, 각 지역 동학농민군을 진압했던 활동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들로써 제 3권에서는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의 활동내용을, 제 4권에서는 충청도와 강원도, 그리고 황해도 지역의 활동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국역총서를 통해 연구자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1894년 당시 각 지역에서 발생한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이에 대응했던 보수지배층의 진압활동 등을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 사무국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와 동학농민군이 지향하는 바가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번역 사업을 계속해 나아갈 것입니다.

2008년 5월 일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사무국장